

최승자 시 연구

- 시의식의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

박 영 우(경기대)

1. 머리말

최승자는 1979년 계간 『문학과 지성』 가을호에 「이 시대의 사랑」 외 4편을 발표하면서 시단에 등단하였다. 그의 시는 기존 여류시인의 전통적인 서정적 문법을 파기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과 시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적 지평을 확대한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그를 80년대적 시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삶의 비극성이 속수무책으로 깊어져버린, 그 80년대의 치욕, 상처, 죽음을 개체성의 몸 체험으로 수렴하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최승자라는 이름은 한 개별자의 고유한 호칭을 넘어 서서 80, 90년대적 시인의 보통 명사이다.¹⁾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시들은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 찬 시대적 상처를 온몸으로 보듬으면서, 새로운 시적 방법론을 통해 시인의 시의식을 강렬하면서도 신선하게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장석주, 『문학, 인공 정원』, 프리미엄북스, 1997. 103면.

본고에서는 그의 시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죽음, 소외 등의 시의식들이 어떤 방법과 양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또한 시적 형상화 과정을 탐구해봄으로써, 최승자 시인의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죽음 의식의 표현 양상

최승자 시인은 죽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죽음 즐기기는 역설적인 방법²⁾을 통하여 사랑과 존재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시에는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시의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는 또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그의 삶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이나 파멸과 관련된 표현들은 비극 그 자체에 함몰되어가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무참히 꺾여지고 좌절의 극에 감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환기시켜³⁾ 주기 위한 시인의 시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그의 시에 나타난 죽음 의식이나, 죽음 이미지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어 ‘사랑’과 ‘존재’의 의미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밤중 흐릿한 불빛 속에
책상 위에 놓인 송곳이
내 두개골의 殺意처럼 빛난다.
고독한 이빨을 갈고 있는 살의,
아니 그것은 사랑.

칼날이 허공에서 빛난다.
내 모가지를 향해 내려오는

2) 정영자, 『한국 여성시인 연구』, 평민사, 1996. 353면.

3) 정과리, 최승자, 『즐거운 일기』 시해설, 문학과 지성사, 1984. 115면.

그러나 순간순간 영원히 멈춰 있는.

쳐라 쳐라 내 목을 쳐라.
내 모가지가 땅바닥에 덩그렁
떨어지는 소리를, 땅바닥에 떨어진
내 모가지의 귀로 듣고 싶고
그러고서야 땅바닥에 떨어진
나의 눈은 눈감을 것이다.

— 「사랑 혹은 살의랄까 자폭」 전문

이 시의 1연에서 화자는 ‘책상 위에 놓인’ 날카로운 ‘송곳’을 보며 ‘살의’에 번득이는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느끼는 ‘살의’의 욕망은 이내 ‘고독한 이빨’을 갈고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연에서 그 ‘살의’의 ‘칼날’은 ‘허공’에서만 빛나는 무위의 칼날일 뿐이다. 그 사랑의 칼날은 대상을 향해 과감하게 다가서지 못하고 결국은 “내 모가지를 향해 내려오는/ 그러나 순간순간 영원히 멈춰 있는” 언제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고독한 대상으로서의 사랑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3연에서 사랑의 칼날이 최후로 향하는 곳은 화자 자신이고 “쳐라 쳐라 내 목을 쳐라.”라고 단말마적 외침을 토해내면서, “내 모가지가 땅바닥에 덩그렁/ 떨어진” 최후의 순간에 되어서야 잘려나간 ‘내 모가지의 귀’로 사랑의 언어를 들으면서 비로소 “나의 눈은 눈감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붙잡으려 해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사랑의 실체를 붙들 어두기 위해, 결국은 살기 어린 강렬한 사랑의 칼날을 통해 자신을 죽음으로 무화시킴으로써, 영원히 멈춰 있기를 바라는 또는 새로운 사랑의 시도를 꿈꾸게 하려는 시인의 의도가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시에서는 시인이 꿈꾸는 사랑의 대상이 직유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흐르는 물처럼
네게로 가리.
물에 풀리는 알콜처럼

알콜에 영키는 니코틴처럼
 니코틴에 달라붙는 카페인처럼
 네게로 가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균처럼
 삶을 거머잡는 죽음처럼.

- 「네게로」 전문

「네게로」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시에서 ‘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이 시의 맥락을 이해하는 핵심이라 하겠다. 앞의 시의 흐름을 볼 때 이 시에서의 ‘너’의 실제 역시 사랑의 대상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흐르는 물’처럼 ‘네’게로 가고 싶다고 서정적인 어조로 진술하고 있지만, 다음부터는 ‘알콜처럼’, ‘니코틴처럼’, ‘카페인처럼’, ‘매독균처럼’, ‘죽음처럼’ 가고 싶다고 극단적 언어를 통해 진술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물에 풀리는’, ‘알콜에 영키는’, ‘니코틴에 달라붙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삶을 거머잡는.’ 과 같은 수식어를 통해 ‘너’에게로 가는 비극성을 점층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의 표현 구조는 1,2행의 “흐르는 물처럼/ 네게로 가 리.”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의 이미지를 전경화(前景化)시킴으로써, 4행에서 9행까지의 의미를 더욱 비극적으로 증폭

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물에 풀리는→알콜처럼’, ‘알콜에 영키는→ 니코틴처럼’, ‘니코틴에 달라붙는→ 카페인처럼’,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균처럼’, 에서의 수식어를 통해 마약처럼 달라붙는 사랑의 속명성을 심화시키고 결국은 ‘삶을 거머잡는→ 죽음처럼.’ 네게로 가고 싶다는 필연적 결말을 이끌어냄으로써 비극적 사랑의 방식을 역설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에서는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도 꿈틀거리는 사랑의 실체를 시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어느 빛 밝은 아침
 잠실 독신자 아파트 방에
 한 여자의 시체가 누워 있다.

식은 몸뚱어리로부터
 한때 뜨거웠던 숨결
 한때 빛났던 꿈결이
 꾸룩꾸룩 새어나오고
 세상을 향한 영원한 부끄러운.
 그녀의 맨발 한 짝이
 이불 밖으로 미안한 듯 빠져나와 있다.
 산발한 머리카락으로부터
 희푸른 희푸른 연기가
 자욱이 피어오르고
 일찍이 절망의 골수분자였던
 그녀의 뇌 세포가 방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져 나와
 구더기처럼 꿈틀거린다.

- 「어느 여인의 종말」 전문

이제 시인이 꿈꾸는 사랑의 실체는 ‘독신자 아파트 방’에 시체가 되어 누워 있다. 죽어서도 홀로 ‘독신자 아파트 방’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토록 열망하던 “한 때 뜨거웠던 숨결/ 한때 빛났던 꿈결”들은 사랑을 잃은 ‘맨 발 한 짝’이 되어 ‘이불 밖으로 미안한 듯 빠져나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육체의 종말이 사랑의 종말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의 모습은 이제 ‘세상을 향한 영원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희푸른 연기’가 되어 피어오르고, 온갖 사랑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을 ‘그녀의 뇌세포’들은 세상을 향해 ‘흥건하게 쏟아져 나와’ 다시 ‘구더기처럼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 시 역시 죽음의 구체화된 이미지들을 통해 이미 흘러갔을 뼈아픈 사랑의 추억들을 현재화시키고 있다. 또한 현재화된 사랑의 모습들을 마지막 행에서 ‘구더기’의 꿈틀거리는 이미지로 재생시킴으로써 고통스럽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랑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너에게로 다가가고자 한다.

언젠가 다시 한번
 너를 만나러 가마.

언젠가 다시 한번
내 몸이 무덤에 닿기 전에.

나는 언제나 너이고 싶었고
너의 고통이고 싶었지만
우리가 지나쳐온,
아직도 어느 갈피에선가
흔들리고 있을 아득한 그 거리들.

나는 언제나 너이고 싶었고
너의 고통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나는 다만 들이키고 들이키는
흉내를 내었을 뿐이다.
그 치욕의 잔
끝없는 나날
죽음 앞에서
한 발 앞으로
한 발 뒤로
끝없는 그 삶의 舞蹈를
다만 흉내내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너를 피해
달아나고 달아나는
흉내를 내고 있다.
어디에도 없는 너를 피해.

언젠가 다시 한번
너를 만나러 가마
언젠가 다시 한번
내 몸이 무덤에 닿기 전에.

(이 세계의
어느 낯선 모퉁이에서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 「언젠가 다시 한번」 전문

이 시에서 화자는 “언젠가 다시 한번/ 너를 만나러 가마.”라고 1연과 5연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너를 만나겠다는 심적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런데 “내 몸이 무덤에 닿기 전에”라는 표현은 다가가고자 하는 사랑의 실체가 아직은 불분명하고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연에서 “나는 너이고 싶었고/ 너의 고통이고 싶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아득할’ 뿐이다. 그런 이유로 3연에서는 너에게로 다가가고자하는 나의 모습은 “들이키고 들이키는 흉내를 내었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그 흉내는 죽음 앞에서 서성이는 ‘끝없는 삶의 舞蹈’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지금 ‘어디에도 없는’ 너를 피해 달아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연에서 다시 ‘내 몸이 무덤에 닿기 전에’ ‘너를 만나러 가마’라고 진솔함으로써,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은 혼란 속에서도 너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이 시에서는 불확실한 사랑의 실체를 찾아 나서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1연과 5.6연을 통해 각인시키고, 2,3,4연에서는 ‘너’와의 재회를 위한 험난한 심리적 도정을 그려냄으로써, ‘고통’처럼 아픈 사랑의 실체를 찾아 나서겠다는 화자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 앞의 시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시인은 삶의 한 부분이고 삶의 그림자와 같은 죽음 이미지들을 통해 절실한 사랑의 모습들을 현재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있다. 최승자 시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들은 죽음 그 자체, 또는 무화되어가는 존재에 대한 허무를 배경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의 실체를 욕망하고 찾아가고자 하는 지난한 몸짓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거침없이 드러나는 직설적이고 강렬한 표현 및 이미지의 사용은 시의 주제의식을 강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체험을 직설적으로 노출하는 고백성이 강한 그의 시의 특성⁴⁾과 맞물리면서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깊은 공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4) 이남호, 『문학의 僞足』, 민음사, 1990. 219면.

3. 소외된 몸의 표현 양상

최승자 시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신체적 사유와 신체에 관한 이미지를 통해 시인의 시의식을 드러내는데 있다 할 것이다. 시인에게 육체란 단지 정신의 외양이 아니라 삶이 그곳에 근거하는 구체적인 실재이다. 육체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세계와 교섭할 수 없다. 최승자 시인에게 육체는 지울 수 없는 진실이며, 세계와 만나는 유일한 형식이다.⁵⁾ 화해할 수 없는 현실 인식과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시인은 자신이 욕망하는 진실의 실체를 고통하고 고통 당하는 신체를 통해 찾고자 몸부림친다.

이 장에서는 최승자 시인의 시에 사용된 소외되고 버림받은 신체에 관한 이미지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인의 시의식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우저(Anold Hauser)에 의하면 소외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가 상실되었다는 감각이고, 자기 자신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감각이며, 또 자신의 향상심이나 자신의 규범 또한 야심을 살릴 희망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감각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보편적 의미도 획득할 수 없는 상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어떠한 방법적 기반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는 존재를 비인간적 수준으로 끌어내린다.⁶⁾ 다음 시에서처럼 시적 화자는 자신의 존재를 인간적 현실로부터 멀리 격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개 같은 가을이 쳐들어 온다.
매독 같은 가을,
그리고 죽음은, 황혼 그 마비된
한 쪽 다리에 찾아온다.

- 「개 같은 가을이」부분

이 시의 3,4행에서 보듯이 시인의 시의식은 ‘매독’ 같은 ‘마비된’ 육체를 통

5) 이광호, 『위반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3, 154면.

6) 엄경희, 『현대시의 발견과 성찰』, 보고사, 2005, 231면.

해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개 같은’ 시간, ‘매독 같은’ 육체는 다시 ‘죽음’으로 전이되고 ‘죽음’은 다시 ‘마비된 한 쪽 다리’로 전이됨으로써 시적 화자의 비극적 정조와 시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다음 시에서 육체를 통해 보여주는 보다 심화된 시의식의 양상을 살펴보자.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
시큰거리는 치통 같은 흰 손수건을 내저으며
놀라 부릅뜬 흰 자위로 애원하며.

내 꿈은 말이야, 위장에서 암세포가 싹트고
장가가는 거야, 간장에서 독이 반짝 눈뜬다.
두 눈구멍에 죽음의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피는 젤리 손톱은 툭툭 머리칼은 철사
끝없는 광물질의 안개를 뚫고
몸뚱어리 없는 그림자가 나아가고
이제 새로 꿀 꿈이 없는 새들은
추억의 골고다로 날아가 뼈를 문고
흰 손수건이 떨어뜨려지고
부릅뜬 흰자위가 감긴다.

오 행복행복행복한 행복
기쁘다 우리 철판 깔았네

— 「삼십세」 전문

이 시에서 시인은 ‘삼십세’라는 나이를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는’ 막막한 시기로 규정하고, 인용시의 굵은 글씨처럼 9개의 신체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서른 살이 된 시적 화자의 의식을 구체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이 시에 사용된 신체 부위를 보면 1연에서 ‘치통’, ‘흰자위’, 2연에서는 ‘위장’, ‘암세포’, ‘간장’, ‘눈구멍’, ‘손톱’, ‘머리카’, ‘몸뚱어리’, ‘뼈’ 등 신체의 여러 부위들과 또 신체와 관련된 병적 증상 등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화자의 심리적 정황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 연의 “오 행복행복행복한 행복/ 기쁘다 우리 철관 깔았네”에 서는 현실 상황과 존재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아이러니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시인의 시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최승자 시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여성성의 표현은 여성의 몸이 지니고 있는 모태 공간으로서의 생명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와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라 여겨진다. 하지만 그의 시에 드러난 여성성은 더럽혀진 성(性)이나, 낙태, 사산 등 온전하지 못한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다음 시를 통해 여성의 몸이 시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살펴 보자.

여자들은 저마다의 몸속에 하나씩의 무덤을 갖고 있다.

죽음과 탄생이 땀 흘리는 곳,

어디로인지 떠나기 위하여 모든 인간들이 몸부림치는

영원히 눈먼 항구.

알타미라 동굴처럼 거대한 사원의 폐허처럼

굳어진 죽은 바다처럼 여자들은 누워 있다.

새들의 고향은 거기.

모래바람 부는 여자들의 내부엔

새들이 최초의 알을 까고 나온 탄생의 껍질과

죽음의 잔해가 탄피처럼 가득 쌓여 있다.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 위해선

그 폐허의 사원과 굳어진 죽은 바다를 거쳐야만 한다.

— 「여성에 관하여」 전문

이 시는 앞의 시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신체 부위보다는 ‘여자’ 또는 ‘몸’ 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저마다 몸 속에 ‘하나씩의 무덤’을 갖고 있으며, ‘영원히 눈 먼 항구’이며, 원시 시대의 ‘알타미라 동굴’이며, ‘거대한 사원의 폐허’, ‘굳어진 죽은 바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여성의 몸이 갖는 의미를 앞에서 열거한 여러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인용했던 시들처럼 신체 이미지를 통한 시상 전개가 아니라, 여성의 몸이 갖는 속성을 외부의 대상이 갖는 특성들

을 활용하여 형상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행에서의 ‘무덤’은 2행의 ‘죽음과 탄생’이 교차하는 자궁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그것은 다시 7행의 ‘새들의 고향은 거기’ 라는 표현을 통해 모태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다시 다음 행의 “새들이 알을 까고 나온 탄생의 껍질과 죽음의 잔해가 탄피처럼 가득 쌓여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소외되고 훼손된 여성성의 정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시인은 외부 대상들의 구체화된 이미지들을 여성의 몸속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세계 또는 타자와의 소통 가능성이 없는 단절된 시인의 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몸 이미지를 활용한 시 쓰기는 다음 시를 통해 한층 심화,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흰 똥을 갈기고
죽어 삼일간을 떠돌던 한 여자의 시체가
해양 경비대 경비정에 걸렸다.
여자의 자궁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었다.
(오염된 바다)
열려진 자궁으로부터 병약하고 창백한 아이들은
바다의 햇빛이 눈이 부서 비틀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파도의 포말을 타고
오대주 육대양으로 흩어져 갔다.
죽은 여자는 호물호물한 빈 껍데기로 남아
비닐처럼 떠돌고 있었다.
세계 각처로 빨빨이 흩어져간 아이들은
남아연방의 피터마릿츠버그나 오텐달루스트에서
질긴 거미집을 치고, 비올빈의 정글에서
땅 속에다 알을 까놓고 독일의 베를린이나
파리의 오르상가나 오스망가에서
야밤을 틈타 매독을 퍼트리고 사생아를 낳으면서,
간혹 너무도 길고 지루한 밤에는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언제나 불발의 혁명을.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

(오염된 바다)

—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 전문

이 시는 1행의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라는 여행 이미지를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노리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행 이미지들은 고단한 일상의 현실에서 벗어나 일탈의 여유와 기쁨, 또는 삶에 대한 성찰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시의 화자가 겨울 바다에 가서 발견한 것은 ‘한 여자의 시체’이다. 바다와 만나는 여자의 시체를 통해 시적 상상력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체가 22행으로 이루어진 시이지만 이 시의 핵심 시상은 인용시의 짧은 활자로 된 부분들이다. ‘여자의 시체’ 그 시체의 한 부분인 ‘자궁’이 ‘바다’의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시상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의 시의식을 심화시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다 또는 물의 이미지인데, 그러나 그 바다는 ‘(오염된 바다)’이다. 이 ‘오염된 바다’라는 전제가 이 시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염된 바다’에서 죽은 여자의 ‘열려진 자궁’에서는 ‘병약하고 창백한 아이들이’ ‘비틀거리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갈림의 순간에 모태는 신생아들에게 행복한 지반이 되어주지 못하며, 신생아들이 빠져나간 모태는 생명력을 상실한다. 죽음 그 자체가 된다. 모태는 빈 껍데기로 떠돌고 아이들은 헤매이며, 언제나 파행과 실패를 낳는 행각을 벌이고⁷⁾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염된 바다를 타고 세계 각지로 흩어진 아이들은 다시 ‘매독을 퍼뜨리고 사생아를 낳으면서’, ‘불발의 혁명’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혁명을 일으켰다가 아니고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아이들에게 혁명은 어떤 정의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혁명이 아니라, ‘간혹 너무도 길고 지루한 밤’을 매우기 위한 심심풀이 같은 놀이에 불과한 전혀 성공할 가망이 없는 ‘언제나 불발의 혁명’이다. 시인이 어찌면 이 시를 통해 가장 쓰고 싶었던 말이 ‘불발의 혁명’이라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시의 구조상으로도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불발의 혁명’

7) 정과리, 최승자, 『즐거운 일기』 시 해설, 문학과 지성사, 1984, 186면.

에 집중되고 있는 느낌이다. 실질적으로 첫 행과 마지막 행의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라는 표현을 지우고 나면 “언제나 불발의 혁명을”이 마지막 행이 된다. 결국 불발의 혁명을 안고 사는 사람은 시인 자신이다. 그래서 그는 겨울에 비록 오염은 되었지만 바다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은 생명과 재생으로서의 공간이자 화해로 가는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시인이 세계를 보는 인식은 비극적이다. 그 비극적 인식은 1980년대 초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와 시인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비극적 인식이 여성의 훼손된 몸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표현 방법으로는 신체의 부위 또는 신체와 관련된 병적 증상들을 통해서 심화되기도 하고, 또는 외부의 대상들을 몸의 내부로 끌어들여 자아와 세계와의 소통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시적 화자인 ‘나’의 몸은 소외에서 화해와 소통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4. 화해를 위한 부정의 어법

최승자 시인의 시작법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역설과 부정의 어법을 통해 시의식을 심화시키는데 있다.

최승자 시인의 학창 시절은 1970년대이다. 시인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은 그가 쓴 산문에서도 읽어낼 수 있듯이 주체와 타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가 파행적으로 치달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쓰여진 최승자의 시는 부정의 어법을 통한 비극적인 방법론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나는 아무 제자도 아니며
누구의 친구도 못 된다.
잡초나 늪 속에서 나쁜 꿈을 꾸는
어둠의 자손, 암시에 걸린 육신.

어머니 나는 어둠이이에요.
그 옛날 아담과 이브가
풀밭에서 일어난 어느 아침부터

긴 몸뚱어리의 슬픔이예요.

밝은 거리에서 아이들은
새처럼 지저귀며
꽃처럼 피어나며
햇빛 속에 저 눈부신 天性的의 사람들
저이들이 마시는 순순한 술은
갈라진 이 혀끝에는 맞지 않는구나.
잡초나 늪 속에 온 몸을 사려감고
내 슬픔의 毒 이 전신에 발효되길 기다릴 뿐

뱃속의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구하듯
하늘 향해 몰래몰래 울면서
나는 태양에의 사악한 꿈을 꾸고 있다.

- 「자화상」 전문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은 자신의 운명을 ‘어둠의 자손’, ‘암시에 걸린 육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원죄의 상징인 뱀의 슬픈 운명처럼 모든 사람 들로부터 기피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기어 다니는 운명이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의식의 불행 때문에 일상적인 행복과는 상관없이 태어난 자아 속에서 ‘슬픔의 毒’이 발효하기를 기다리는데, 바로 그 과정이 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아와 대상, 자아와 일상, 자아와 상황과의 이 숙명적인 괴리의 인식은 시인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관계를 부인하게 만든다.⁸⁾

즉 1연에서의 화자의 부정적 인식은 2연으로 전이되면서 ‘긴 몸뚱어리의 슬픔’을 가진 불순한 몸으로 형상화되어, 3연의 1행부터 6행까지 그려지고 있는 ‘밝고 눈부신 천성을 지닌 순순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처지를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시인의 이러한 부정적 어법은 단순히 부정과 절망의 현실만을 그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3연 마지막 행의 ‘내 슬픔의 毒이 발효하길 기다리는 성찰의 시간을 거치면서 마지막 연의 “뱃속의 아이가 사랑을 구하듯/ 나는 태양에의 사악한 꿈을 꾸고 있다.” 라는 주제의식과 연결시킴으로써

8) 김치수, 최승자, 『이 시대의 사랑』 시해설, 문학과 지성사, 1981. 94-95면.

시적 효과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정의 어법을 통한 시 쓰기는 다음 시에서도 계속된다.

일찍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취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당신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 「일찍이 나는」 전문

이 시에서 시인은 1연에서 “일찍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인 스스로 자신을 ‘곰팡이’, ‘오줌 자국’, ‘이미 천년 전에 죽은 시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연에서는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통해 부모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1연의 첫 행과 2연의 마지막 행에 “일찍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라는 단정적 진술을 배치하고, 그 괄호 안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진술을 늘어놓음으로써, 이 시의 주제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적 구성은 마지막 연의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

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표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시적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인이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이율배반적 상황과 존재에 대한 비극적 인식은 그의 시에서 자주 아이러니적 진술로 반복되어 표현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아이러니는 수사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인식의 태도이다. 분열과 갈등을 인지하고 통합함으로써 삶의 전체성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이러니의 발원지이다. 따라서 최승자 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역설이나 아이러니적 진술은 존재의 이율배반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혼란을 돌파해가려는 시인의 삶의 태도를 반영⁹⁾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강조시키는 이러한 진술 방식은 시인의 시의식을 드러내는데도 유용하다.

오 행복행복행복한 행복
기쁘다 우리 첩판 깔았네

- 「삼십세」 부분

절망하기 위해 밥을 먹고
절망하기 위하여 성교한다.

- 「과거를 가진 사람들」 부분

행복이 없어 행복한 너
절망이 모자라 절망하는 너
무엇이나 되고 싶은 너
아무 것도 되고 싶지 않는 너

- 「시인 이성복에게」 부분

앞의 시 「삼십세」와 「과거를 가진 사람들」에서는 인용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시인 이성복에게」에서는 중간에 배치함으로써 아이러니적 효과를 통해 시인은 의도적으로 주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적 효과는 다음 시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드러난다.

9) 엄경희, 앞의 책, 2005. 227면.

흠은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무한무한 증가한다.
 우리가 무한무한 태어나고
 우리가 무한무한 죽어가므로,
 우리가 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흠을 생산하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으로써.

— 「희망의 감옥」 부분

이 시에서 보는 것처럼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시의식의 세계는 부정이
 긍정을 낳고, 다시 그 긍정이 부정을 낳고, 다시 긍정, 부정으로 이어지는 순
 환이면서, 순환 이상의 것이다. 그 반복되는 뒤집히는 움직임은 단순히 돌아
 가는 행위가 아니라, '무한무한' 증폭되고 변모를 수반하는 생산적 행위이다.
 그 무한한 긍정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희망이라는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해
 야 하는 역동적 생성의 공간을 만들어¹⁰⁾내고 있는 것이다.

앞의 시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승자의 시는 강력한 일상적 언어들 이 서로
 부딪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후 화해를 모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고통스런 삶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한 시인의 시의식을 형상화시키고자 하
 는 방법의 하나로, 부정이나 반어적 어법을 활용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의 시는 부정을 목표로 한 부정이 아니라, “없음을 뚫어지
 게 바라보면서, 없음의 현실을 부정하는 힘 또 없음에 대한 있음은 꿈꾸는 건
 강한 힘”이다. 최승자는 단지 파괴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시를 쓰지 않았다. 그
 것은 부정과 파괴하는 방법론을 가진 긍정과 생성의 시학.¹¹⁾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적 특성은 궁극적으로 시인이 갈망하는 불화의 현실 또는
 타자와의 화해를 통해, 역동적 생성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최승자의 육화
 된 시적 숙명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다.

10) 진형준, 최승자 『기억의 집』 해설, 문학과지성사. 1996. 99면.

11) 이광호, 앞의 책, 148면.

5. 맺음말

지금까지 최승자 시인의 시에 나타난 시의식의 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의 시에 나타난 대표적인 시의식의 표현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죽음 의식을 통한 사랑과 존재의 탐구 방식이다. 구체화된 죽음의 이미지들을 통해 이미 흘러갔을 뼈아픈 사랑의 추억들을 현재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화된 사랑의 모습들을 사실적이고 구체화된 이미지로 재생시킴으로써, 고통스럽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존재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소외와 소통의 공간으로서 몸의 사유와 몸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의식을 육화(肉化)시킨다는 점이다. 시인에게 몸이란 단지 정신의 외양이 아니라 삶이 그곳에 근거하는 구체적인 실재이다. 육체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와 교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승자 시인에게 몸은 지울 수 없는 진실이며, 세계와 만나는 유일한 형식이다. 화해할 수 없는 현실 인식과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시인은 자신이 욕망하는 진실의 실체를 몸 이미지를 통해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역설과 부정의 어법, 아이러니적 진술을 통해 더욱 간절하게 현실과의 화해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시인은 현실 상황과 존재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부정의 어법과 아이러니적 진술을 통해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인이 실제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최승자의 시에 있어 이러한 부정과 반어적 어법, 아이러니적 진술은 존재의 이율배반을 받아들이기 뿐만 아니라 그 혼란을 돌파하면서 세계와의 화해를 시도하고자 하는 시인의 삶의 태도를 반영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최승자 시인의 시의식의 표현 방법 및 양상이 시인의 시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 : 죽음의식, 신체 이미지, 부정의 어법, 시의식의 육화.

〈참고문헌〉

- 김치수, 『사랑의 방법』, 『이 시대의 사랑』해설, 문학과 지성사, 1981.
김 현,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말들의 풍경』, 문학과 지성사, 1992.
박혜경, 『상처와 응시』, 문학과 지성사, 1997.
엄경희, 『현대시의 발견과 성찰』, 보고사, 2005.
이광호, 『위반의 시학』, 문학과 지성사, 1993.
이남호, 『문학의 僞足』, 민음사, 1990.
이문재, 『내가 만난 시와 시인』, 문학동네, 2003.
장석주,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 4』, 시공사, 2000.
장석주, 『문학, 인공 정원』, 프리미엄북스, 1997.
정영자, 『한국 여성시인 연구』, 평민사, 1996.
최승자, 『이 시대의 사랑』, 문학과 지성사, 1981.
최승자, 『즐거운 일기』, 문학과 지성사, 1984.
최승자 『기억의 집』, 문학과지성사, 1996.
황현산, 『포에지』, 나남출판사, 2001.7호

【Abstracts】

A Study of Choi Seung-Ja' s Poems

– Based on Methods of Expressing the Consciousness of poems

Park, Young-woo

Choi Seung-Ja started her literary career through writing 'Love of this time' and four other poems in quarterly publication magazine 'literature and intelligence' in 1979. She has been considered a poet who opened a new prospect in the field of poetic expression by making a new attempt through abandoning the existing female poets' traditional lyric expression and suggesting a new viewpoint on facing the f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understand Choi Seung-Ja's poems through studying death and alienation expressed in her poems. Her representative writing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she uses the image of death to depict love. She makes use of the detailed death image to bring the memory of already-gone painful love to the present. She also calls attention to the meaning of love which is painful but still ongoing by regenerating the present aspects of love as factual and detailed image.

Second, she incarnates the consciousness of poems by the image of body. One of the remarkable features which appear in Choi's poems is to

express her vision of poems through physical thought and image about bodies. As for a poet, a body is not outward appearance of the mind, but concrete reality on which life is based. We cannot communicate with the outer world without through bodies. Choi regards a body as truth which cannot be erased and the only way to meet the world. A poet deepens the reality of truth which he or she desires by the use of body image.

Third, she deepens themes using the negative speech. In many cases, poets describe ironically the tragic awareness of the present situation and existence, which is a way of exaggerating the poetic meaning effectively by opposite expressions of what they really want to say. Choi not only accepts this ironical expression as an antinomic statement but also reflects her attitude toward life in which she wants to get over such a confusing situation.

I hope this study of Choi Seung-Ja's methods of expressing the consciousness of poems will help understand poets' mind.

Key Words : image of death, image of body, negative speech, incarnates the consciousness of poems.

이 논문은 2008년 6월 28일에 투고되었으며, 2008년 7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